Economy p/09
갤럭시S4 보조금 딜레마

메트로 2013년 4월 18일 목요일 제271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악동뮤지션 소속사 고민

마스카라 쓰는 예쁜남자 많아졌다
NEWS p/02
보스턴 테러 '공포의 압력솥 폭탄'
GLOBAL p/11

오수·오영 맺어준 'IT의 힘'

장애인용 스마트폰 앱·서비스 등 봇물…세상과의 소통 돕는 '따뜻한 도우미' 역할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 글자를 쓰자 바로 점자로 변환된다. 이 점자를 종이에 표시해 시각장애인인 연인과 대화를 나눈다.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많은 시청자들을 눈물짓게 만든 장면이다. 주인공 조인성(오수)은 앞을 못 보는 연인 송혜교(오영)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점자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IT 도우미를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이 일반적이었던 장애인들이 송혜교처럼 IT의 도움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일반인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메트로신문이 '장애인 IT도우미'를 만나봤다.

다국적 보청기 기업 포낙의 FM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인공 와우(달팽이관)나 보청기에 결합해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FM라디오 청취 방식으로 청각장애인들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최근 장애를 지닌 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김영자(41)씨는 "청각장애인들은 소음과 울림 현상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FM 시스템 덕분에 아들이 난생처음 영화를 보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스마트 로봇 '알보트'도 눈길을 끈다. 이 로봇에 시각장애인 전용 앱을 설치하면 동화책은 물론 문자메시지 등을 목소리로 읽어준다.

KT도 IT서포터즈를 동원해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사용 교재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 교재는 음성 CD와 저시력자 강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KT는 조만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음성 인식 가능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업계도 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3·갤럭시노트 II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토크백'을 서비스 중이다. 실행된 화면과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줘 시각장애인도 불편하지 않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청력 문제로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의 생활도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다. 헬렌폼화를 이용하면 음성을 증폭할 수 있어 보다 편한 통화가 가능하다. 영상통화로 입 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수도 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지만 IT 도우미 덕분에 일반학교를 불편없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김민균(11)군의 어머니는 "민균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들과 통화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볍다"며 "특수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보냈는데 반에서 줄곧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봄의 불청객 올해도 잠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올 들어 서울에서 관측된 황사는 지난달 3회에 그쳤다"며 "이달 들어서도 8~9일 옅은 황사가 발생했지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를 한반도로 유입시키는 기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유입기류 없어 황사 발생 가능성 낮아

일본 동쪽에는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고 연해주 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중국 내륙에서는 남풍과 동풍이 불면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봄에는 황사가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다가 가을철인 11월에 한 차례 나타났다. 2011년 9회, 2010년 15회 등과 비교해 보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채용호기자 eleven@

수륙양용차 타고 사파리 투어… 에버랜드 '로스트 밸리' 20일 오픈 20일 문을 여는 국내 최대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 밸리'의 기린들이 17일 수륙양용차 옆을 거닐고 있다. 로스트 밸리는 에버랜드가 지난 2년 동안 500억원을 들여 준비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았던 전설 속의 동물 낙원을 담험하는 테마로 구성됐다. /에버랜드 제공

알바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알바 활빈당 활동 개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체인 '알바연대'는 17일 '알바활빈당(알빈당)'을 구성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알바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대흥동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알빈당'의 이름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장위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강력히 전하고 이를 반대하는 단체는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주식 재벌이 가진 주가 총액은 33조원(2011년 기준)으로 이 돈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137만 명에게 최저 시급 1만원을 줄 수 있다"며 "재벌 사장들의 재산만으로도 가난한 '알바'들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 재벌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위험하게 살아가는 수백만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는 경총이 나서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기기자

마스카라 하는 그 남자

10명중 1명 비비크림·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

자신을 가꾸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 10명 중 1명이 색조화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톤을 보정하는 비비크림은 기본이고 눈매를 또렷하게 하는 아이라이너다 마스카라를 쓰는 남성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전국 15세 이상 국민 1498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498명 가운데 45명(9.2%)이 비비크림·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색조화장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4.4%였으며 10대와 40대도 각각 6.7%와 4.4%를 차지했다. 남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는 비비크림(97.8%)이 꼽혔다. 다음으로 파우더(35.6%), 메이크업 베이스(33.3%), 파운데이션(31.1%) 순이었다.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쓴다는 응답도 각각 26.7%와 20%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한 남성들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은 평균 2.3개로 여성이 평균적으로 쓰는 수인 3.2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성은 전체의 83%, 남성은 절반 이상인 56%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통학버스가 불안하다

학원·보육시설 버스 70% 이상 신고도 하지 않고 운행

학원·보육시설 등의 통학버스 가운데 70% 이상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6만 대로 추정되는 통학버스 중 경찰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4만6000여 대로 집계됐다. 신고율이 26.6%에 불과한 것이다.

또 학원버스의 54.0%, 보육시설 버스의 35.3%는 불법 형태인 지입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제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시켜 계약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203건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사고 100건당 4.4명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는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통학버스는 보험 가입은 물론 운전자 안전 교육, 안전장치 구비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미신고 차량의 경우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용기기자 kahn@metroseoul.co.kr

국내 운전면허만으로 美콜로라도주서 운전

앞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내 운전면허만으로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콜로라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 18일 발효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면 별도 교육과 필기·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으면 현지 운전면허(R class)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젖먹던 힘까지! 17일 서울 잠실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배근력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악성 앱으로 좀비폰 만들어 2억대 스미싱

신종 스미싱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금융정보 탈취를 뜻하는 스미싱은 악성코드를 심어 스마트폰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놓고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사기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스마트폰을 해킹해 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양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쓰촨성의 한 사무실에서 악성 프로그램(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12만여 건을 발송해 이 중 약 50명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인 해커 5명과 함께 제작한 뒤 '구글코리아가 제작한 신규 앱'이라며 설치하라는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를 통해 20명의 스마트폰에서 30여 회에 걸쳐 500만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사기가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인증 메시지를 보지 못해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 안전결제(ISP) 인증서 정보를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227명의 PC에 심은 뒤 게임 사이트 등에서 1000여 회에 걸쳐 신용 결제하는 수법으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걱정 던 내집마련

다음주부터 처음 주택 사면 규제 안받아 … 85㎡·6억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다음주부터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예외 적용이 시작된다. 처음으로 주택 사는 사람들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6월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은행들에 지도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은 다음주 월요일(22일)부터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날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지했다.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또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었다.

단, 이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김학철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까끌까끌 느낌이 이상해 17일 제주시 광명선원에서 동자스님 체험을 위해 머리를 삭발한 어린이들이 서로 까끌까끌한 머리카락을 만지며 신기해하고 있다. /뉴시스

<현상금 100만달러>

'세계 7대 수학 난제' 국내 과학자가 풀었다

국내 과학자들이 현상금 100만 달러(약 11억원)가 걸린 20세기 7대 수학 난제(Millennium Problem) 가운데 하나를 풀었다.

건국대학교는 입자물리학이론과 우주론 및 통일장 분야의 이론물리학자인 조용민(사진) 석학교수(물리학) 연구팀이 미국 클레이수학연구소(CMI)가 제시한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인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 가설(Yang-Mills and Mass Gap)' 문제를 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석학교수는 양자 색역학에서 자기홀극 응집이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물리학술지 '피지컬 리뷰 D(Physical Review D)'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 문제는 미국 클레이수학연구소가 2000년 5월 상금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공고한 물리학의 최대 난제다. /한용수기자 hys@

뉴스 & 뉴스

지방의원 직무 소홀히하면 의정비 삭감 추진

● 직무에 소홀한 광역·기초의원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거나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타인에 대해 모욕하는 경우 등이 의정비 삭감 대상이다.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윤유리기자

윤진숙 임명 조대내각 구성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정부 "유감"

● 북한이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의 가동이 올스톱된 상황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9명은 식료품 등이 부족해 체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동호기자

4000억 확보못해 양육수당 6월 지급중단 위기

● 서울시의 양육수당 지급이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시내 지원 대상 아동은 21만 명 늘었으나, 예산은 4052억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무상보육 예산 집행액을 기초로 추산하면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8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배동호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률

아인슈타인 사망하다

20세기 천재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55년 4월 18일, 76세를 일기로 숨졌다. 독일 울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스위스 취리히 공대를 나와 스위스 특허국에서 근무하던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 당시까지 지배적 과학관인 뉴턴 역학을 뒤흔들고 종래의 시공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질량과 에너지 등가성 원리는 원자폭탄 제조를 예고했는데 2차 대전 후 소련의 핵무장 경쟁이 가속화하자 아인슈타인은 인류 파멸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발 중단을 호소했다.

세계 요트선수 1500명 부산 온다

'코리아 세일링 페스티벌' 22일 개막 · 부산~후쿠오카 극한 레이스도

부산 앞바다에 전 세계 요트들이 몰려온다.

부산시는 세계 각국에서 온 각양각색의 요트들이 바다를 가르며 멋찬 경연을 펼치는 '2013 코리아 세일링 페스티벌'이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 수영만, 전남 여수시 엑스포 신항, 경남 거제 지세포항, 일본 후쿠오카 앞 해상 등지에서 펼쳐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요트축제에는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4월 22~25일) ▲전국 장애인 요트대회(4월 26~28일) ▲부산 슈퍼컵 국제 요트대회(4월27~28일) ▲한·일 아리랑 요트 레이스(5월 2~5일) 등 모두 4개의 대회가 통합해 열린다.

이들 대회에는 세계 12개국 150여 개 팀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4개 대회의 시상 규모만 1억2000만여 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요트축제다.

우선 '2013 코리아 세일링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릴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는 부산·전남·경남이 공동 주최, 영·호남이 요트 하나로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된다.

이 대회는 23일 오전 11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 오후 6시에는 거제도 지세포항에서 1구간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며, 종합 시상식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28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또 이번 축제의 메인 대회인 부산 슈퍼컵 국제요트대회에는 15개국 100개 팀에서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해운대~오륙도 일대 5km 구간에서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이외에도 전국장애인요트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한편 한·일 아리랑 요트 레이스는 부산을 출발, 일본 후쿠오카까지 11시간가량을 쉬지 않고 극한의 레이스를 펼친다.

지난해 슈퍼컵 국제 요트대회

'2013 코리아 세일링 페스티벌'이 4개의 요트대회가 통합돼 진행되는 만큼 부산시가 최고의 요트도시임을 알리고 세계적인 요트축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김수미기자 kan@metrobusan.co.kr

진주의료원 파업 맞서 20m 철탑농성 17일 오전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에서 박석용(45·오른쪽)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47)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건축허가 면적 1년새 25%↓

올 들어서도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1분기 부산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107만2000㎡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143만5000㎡에 비해 25.2%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허가가 374개 동 38만2000㎡로 지난해 대비 40.2% 줄었고 상업용 건축허가도 727개 동 37만8000㎡로 10.1% 감소했다.

올 1분기 건축물 착공 면적은 83만㎡로 지난해 1분기의 155만㎡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용도별 착공 면적도 주거용이 366개 동 25만3000㎡로 지난해보다 50.7%나 급감했고 상업용도 395개 동 31만3000㎡로 52.7% 감소했다.

철강왕 박태준 기념관 건립

부산 기장군에 '철강왕'으로 불리는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된다. 박 전 회장의 고향인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임랑마을에 들어선다.

기장군은 고인의 생가를 포함해 임랑마을 일대 5214㎡에 임랑문화공원(박태준 기념관)을 조성하기로 하고 설계·전시 공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6월 말 당선작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기념관은 전체 면적 10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기념관에는 유족과 포스코 측으로부터 받은 고인의 옷, 신발, 책, 연전모, 가구, 조각상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철강왕'의 삶을 조망하는 다양한 시진과 자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뉴스

화학사고 화재 진압 이렇게… 경남소방본부가 17일 의령군 가례면 경남도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한 화학사고 대비 훈련에서 불새 진압 시범을 보이고 있다. /뉴스

무학 울산공장 1개월 정지 처분

부산국세청이 15일 소주 제조업체 무학의 울산공장에 대해 주류 제조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학은 무학 울산공장이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 정지 처분을 통지받아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개월간 주류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소주 반제품을 창원공장으로부터 들여와 소주 완제품을 만들다 주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무학은 이 과정에서 50% 반제품으로 완제품 소주를 만들고도 장부상에는 완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기장하면서 주세법을 위반, 이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학 울산공장은 한 달간 제조정지로 32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학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세는 종가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완제품 생산량을 기록하더라도 세금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울산공장이 멈춰도 창원공장의 생산 능력이 충분해 주류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난감 반값에 사세요

메가마트 가정의 달 앞두고 할인 행사

메가마트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18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날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완구류, 닌텐도, 아동용 자전거 등을 사전 할인을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기 캐릭터 완구류를 롯데카드로 구매 시 1인 1개 한정으로, 도봇(1만5000원 할인) 3만1000원, 전기 충전 전동차(10만원 할인) 24만8000원 등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부모님과 자연들의 선물로 인기 있는 대표 선물세트 100여 종도 사전 할인해 전복 세트(12마리)를 6만2000원, 신선도원 한우구이 스테이크 세트(1.6kg)를 17만9000원에 판매한다.

특히 와인 5만원 균일가전과 함께 와인 커빙(와인병에 문구와 이름 등을 새겨 주는 것) 서비스, 가정의 달 선물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택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가정의 달 경품 대축제를 열고 5월 3일까지 당일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응모권 지급 및 추첨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호텔 식사권, 메가마트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에어부산, 국제노선 첫 지원금

에어부산이 지난해 7월부터 취항한 부산~마카오 항공 노선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국제항공노선 확충 첫 지원금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에어부산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심사해 부산~마카오 노선의 운임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6개월 운항 기준으로 1억1500만원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기준 탑승률에서 해당 노선의 평균 탑승률을 뺀 뒤 편당 평균 좌석 수, 여객 1명당 운임, 총 운항 횟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한편 에어아시아 엑스도 오는 7월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에 신규 취항하기로 해 보조금 지원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해에도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금 공모를 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가족만나기 행사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 행사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삼락생태공원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부산시와 (사)부산시수의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 30마리, 고양이 10마리를 무료로 분양한다.

분양 예정인 유기동물은 부산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기초 건강검진을 받은 뒤 네이버 '부산유기동물 가족만나기' 또는 시청 농축산유통과를 통해 입양을 희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육 환경, 입양 경력 등 심사를 거친 뒤 행사 당일 만남 행사에서 인계한다. 입양 신청은 5월 7일까지다. 행사 당일 (사)부산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10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무료 건강 상담 등도 진행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관리인	[illegible]
서울 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부산지사장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5351 3
부산광고문의	051)9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illegible]

외인 관광객 최다 방문지 해운대

평균 3일 체류하고 쇼핑 선호…의사소통 애로 많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3일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시가 지난해 부산을 찾은 내국인 관광객 2030명, 외국인 관광객 2349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산관광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은 평균 2.7일 부산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관광객이 가장 즐겨 찾은 곳은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자갈치시장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3일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대해수욕장, 국제시장, 남포동 일대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관광 활동을 주로 쇼핑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은 부산 시내를 이동할 때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한 중국인 관광객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부산에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 음식 선택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언어 소통이 안 되고, 택시기사와 의사소통이 애로가 많은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산의 관광지 관리 및 위생 부분은 만족하지만, 부산만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부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언어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식당의 메뉴판에 4개 언어(국·영·일·중) 표기를 확대하고 관광업계 대상 서비스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광객들의 부산 이미지는 '흥미 있는', '동적인' 분위기는 "재미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미기자 kem@metrobusan.co.kr

천연성분 향수 17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들이 제스인, 겐티, 세르가모트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향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동주대 멘토링 프로그램 선포

동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취업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선포 및 결연식을 지난 16일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는 동주대학교 총장 및 각 부서 처장, 부처장, 멘토링 참가 학과 담당교수 및 멘토, 멘티가 참석했다. 선포식과 함께 멘토와 멘티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결연식도 함께 진행했다.

건협,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매월 셋째 일요일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 진단 및 5대암 검진, 학생들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등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태선 원장은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검진 참여와 학생들의 예방접종 기회를 넓히고자 일요일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검진과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검진 당일 오전 7시30분부터 검진을 진행하고 11시에 접수 마감된다. 문의 051)553-6401

산학맞춤기술인력 양성사업 동의과학대 선정 9억 지원금

동의과학대학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2013년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9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전문대학 중 권역별로 5개 대학을 선정해 학생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 간 3자 협약을 통해 구인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동의과대는 부산·경남지역 6개 단체의 40개 중소기업과 '대학-중소기업(단체)-학생' 간 3자 협약을 맺고 취업 약정 시스템인 '맞춤형 드래프트(Draft)'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이 대학은 자동차기계, 기계계열, 전자과, 정보통신과 등 4개 학과의 2학년 60명의 학생을 우선 선발해 이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들 학생은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에서의 현장 실습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참여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지자체 교육경비 64억 줄었다

올해 지원예산 258억…3년간 지속적 감소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부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64억원이 줄어든 258억원 규모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구·군의 교육경비는 2011년 393억여 원, 지난해 322억여 원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군의 교육경비 지원 유형은 ▲교육경비 보조금 ▲비법정 전입금(자치구·군에서 교육비 특별 회계로 직접 전출) ▲기타 지원 등으로 나뉜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64.4억원을 투입하는 기장군으로 나타났고, 수영구(43.7억원), 사상구(21.9억원), 동래구(18.4억원), 사하구(1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기장군은 방과 후 및 특화사업 지원사업, 거점 중학교 육성, 무상급식비,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등에 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경남정보대 운영기관에 뽑혀

경남정보대학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3년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과 창업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창업 인식 전환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교육과 체험 기회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정보대는 부산·울산지역 전문대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학은 다음달 안에 창업동아리 10개 팀을 발굴해 육성하고, 창업 아이템 특허출원 비용, 기술·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강좌를 개설하는 등 성공 창업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머리가 톡톡해지는 시간

카카오서 '스도쿠' 게임해요

위메이드의 모바일 신작

뇌 건강을 돕는 '스도쿠'가 카카오 게임하기에 처음 등장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두뇌 트레이닝 퍼즐 게임 '위메이드 스도쿠 for Kakao'를 출시했다.

수학 퍼즐의 유익함에 즐거움까지 더한 모바일게임으로,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신작은 스도쿠 기본 규칙에 따라 ▲가로 세로 블록 빈칸에 숫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4×4, 6×6의 캐주얼 모드를 도입했고 ▲초급·중급·고급·박사 단계의 난이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원활한 진행을 도와줄 특수 아이템, 그리고 경험치 상승과 시간 연장 등의 고유 능력을 지닌 30여 종의 동물 캐릭터를 사용해 아이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신작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시작했다. 5월 7일까지 아이큐 점수 150점 이상을 달성하는 이용자들 중 매주 한 명씩 선정해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위메이드 모바일 통합 브랜드인 위미(weme)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wemewemade)에 스도쿠를 함께 즐길 친구를 초대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를 선물한다.

/박상훈기자 zen@

캠핑에도 스마트 물결

LTE노트북으로 별자리 정보 찾고… 초소형 빔 있으면 '텐트극장' 변신

인기 예능 프로 '아빠! 어디가?'를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아웃도어 아빠'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한 IT기기로 캠핑을 여유롭게 하는 '스마트 대디'가 인기다. 이들은 분위기에 맞는 IT기기를 적절히 배치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이템이 삼성전자에서 최근 출시한 '아티브 스마트 PC' LTE 모델이다.

이 제품은 초고속 LTE 통신을 지원해 장소에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을 빠르게 쓸 수 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캠핑장에서 요리 레시피, 여행 지역 또는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들풀과 들꽃들을 검색해 공부하는 '라이브' 학습도 가능하다.

두께 9.9mm, 무게 757g, 배터리 최대 14시간 지속 등 휴대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GPS가 탑재됐어 급할 때는 내비게이션, 나침반으로 쓸 수 있다.

SK텔레콤의 초소형 빔프로젝터 '스마트 아이빔'은 아이들에게 멋진 극장을 만들어준다.

밤에 텐트 또는 캠핑카의 벽면에 쏴 아이들과 애니메이션 또는 동화를 함께 볼 수 있다. 이 제품은 ▲크기를 4.5cm로 줄여 휴대하기 편하고 ▲맞춤형 교육전 장터를 만들어 검색·다운로드가 쉬우며 ▲음향·코덱 등의 문제없이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모든 콘텐츠를 영시할 수 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 노래자랑도 가능하다.

파파엔토이의 '스마트 가라오케'는 즐겨 듣던 노래의 음성을 없애주고 MR처럼 만들어주는 휴대용 액세서리로,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고 기기 내의 음악을 재생시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스피커와 연결하면 야외에서도 더욱 큰 사운드로 즐길 수 있으며 태블릿 PC에 무료 오디오 프로그램 설치 후 연결하면 노래의 옥타브를 자신의 목소리 키에 맞춰 부를 수 있다. AAA 건전지 4개만 있으면 준비 끝!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 스마트폰과 IT기기의 배터리 소모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여분의 배터리를 챙기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

솔라라이트의 스마트폰 충전 전용 태양전지는 햇살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다. 박막형 태양전지를 사용해 가볍고, 기존 제품 대비 6분의 1 수준인 2시간 만에 완충이 된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 꼼꼼 IT 리뷰 – 모뉴엘 '클링클링'

30만원짜리 로봇청소기 싹싹하게 일 잘하네

29만8000원짜리 로봇청소기 '클링클링'을 써봤다. 대기업이나 수입 브랜드 대비 절반 가격인데 '성능마저 절반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 게 사실.

디자인은 깔끔하다. 경쟁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전원을 켜자 제법 시끄러운 모터 소리가 들린다. '별써 싼티가?' 하는 순간 모뉴얼 측의 설명이 생각났다.

"고성능 모터(BLDC: Brushless DC motors)를 탑재해 기존 청소기보다 강력한 흡입 성능을 자랑합니다."

녀석이 움직이는 걸 보면 물방개가 헤엄치듯이 브러시가 숭 가뿐게 움직간다. 진공 흡입으로는 놓치기 쉬운 구석 청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섀도' 청소 모드를 선택했더니 침대, 소파 밑과 같은 어두운 곳만 찾아서 청소를 해준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준수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흰가를 줄이디 보디 가이라를 뺐고 그래서 공간 사물 지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결국 커버할 수 있는 청소 면적이 줄어든다.

가격이나 청소 범위나의 문제로 틀렸지는데 어차피 로봇청소기는 보조용이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은 중요한 요소다.

/박상훈기자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1923.84	(+1.63)
코스닥	558.54	(-0.41)
금리	2.83	(+0.02)
환율	1117.50	(+1.00)

LG '옵티머스G 프로' 뉴욕서 美출시 행사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G 프로'가 애플 '아이폰'의 안방인 미국에서 출시 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시넷 매셔블 등 IT 전문매체들은 LG전자가 현지 기자들을 상대로 다음달 1일 뉴욕에서 열리는 미디어 행사의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초청장에는 정확한 행사 장소와 행사 목적이 들어있지 않지만 '천재성을 공유하세요(Share the Genius)'라고 써놔 '옵티머스G 프로'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위한 행사로 추측되고 있다. '천재성'을 뜻하는 '지니어스(Genius)'의 머리글자가 '옵티머스G 프로'의 'G'를 뜻한다는 설명이다. '정말 눈부신 스포트라이트(the Spotlight in True Brilliance)'도 LG전자 최초의 풀HD 스마트폰으로 화질을 강조한 옵티머스G 프로의 '트루 HD IPS플러스' 화면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측대로라면 LG전자가 뉴욕에서 스마트폰 출시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뉴스

'퀵라인Q' 청춘여행 이벤트 동국제약 탈년기 치료제 '퀵라인Q'가 청춘여행 프로젝트를 17일 청량리역에서 진행했다. 다음달 5일까지 홈페이지(www.forsitenu.com)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친구와 동게 춘천 일일 여행 기획을 제공한다.

/동국제약 제공

은행 총자산 2000조원 돌파

● 은행 자산이 2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보험도 700조원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 같은 대라에서 은행 대출도 늘어 14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부실 대출은 줄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 총 자산은 2031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1969조원에 비해 62조3000억원이 늘었다. 2011년 말 자산이 566조1000억원이었던 보험사도 지난해 말 699조6000억원까지 올랐다.

/김지성기자

생산자물가 6개월째 하락

●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국제 유가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4% 하락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6개월째 하락세를 이었다. 낙폭은 지난 2009년 10월(-3.1%) 이후 41개월 만의 최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10.1%)의 하락세가 컸고 공산품 가격(-4.1%)도 떨어졌다.

전력·가스·수도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6.3% 올랐고 서비스 요금도 0.2% 상승했다.

/이봉하기자

갤S 중고폰 9만원에 판매

●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경우 상태좋은 중고 단말기를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가입자에게 중고 갤럭시S를 할인가에 제공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8일부터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가입자에게 최상급 상태의 삼성전자 갤럭시S 중고 기기를 9만 원에 판매키로 했다. 이 제품은 SK텔레콤의 중고폰 거래체계인 'T에코폰'에서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성훈기자

셀트리온 사활 건 '공매도 잡기'

서 회장 매각 발표 하루만에 주간사 JP모건 선정
소액주주들 "공매도 세력 안밝히면 금융당국 고발"

공매도를 둘러싼 셀트리온과 금융 당국의 잡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에 투자한 소액주주 측은 최근 2년간 연일 주가 하락을 주도한 공매도 세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마지막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금융 당국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이유로 과감한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모임은 17일 한국IR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 등에 공매도 세력을 적발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금융 당국에 앞으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검찰, 청와대, 감사원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의 공세와 금융 당국의 수수방관을 비판하며 보유 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사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소액주주들이 연달아 내놓은 대응이다.

☞ 공매도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들여 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기는 투기성 거래

업계에서는 해외 매각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해 공매도 세력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면전에서 마지막 '극약처방'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매도 금지를 개별 종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동시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부진한 증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도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작전' 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셀트리온은 서 회장의 지분을 매각할 주간사로 JP모건을 선정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3.35% 떨어지며 전날 상승분(5.06%) 이상을 반납했다.

/김형석기자 hskim@metroseoul.co.kr

K2 워킹화 '플라이워크' 출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아웃도어 브랜드 K2의 워킹화 '플라이워크(FLYWALK)' 론칭 행사에서 탤런트 이하늬(왼쪽 둘째)와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넘쳐나는 오피스텔 '갈아타기 매매' 바람

신도림역 인근에 입주한 지 10년 된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서모(52·여)씨는 최근 월 60만원씩 받던 노후된 오피스텔을 팔고 대림역 인근의 신세계건설 르체라움 2차를 분양받았다. 서씨는 "오래된 오피스텔을 세입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수익률이 떨어져 갈아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오피스텔 신규 분양 시장에서 공급과 재고 물량이 늘고 있다. 노후된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새 오피스텔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늘었다. 또 오래된 신도시 오피스텔에서 인근에 새롭게 조성된 역세권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시인 백강식 본부장은 "최근 분양을 받는 계약자들은 노후된 오피스텔을 팔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대림역 인근의 소형 주택들은 현재 공실도 없을 뿐더러 최근 분양된 물량들도 대대기가 1000만원씩 뛰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보유 중인 노후 오피스텔이 건물 가치 상승도 낮고 임대 수익률도 시중 평균에 못 미친다면 산업단지·역세권 등의 분양가가 저렴한 신규 오피스텔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일부지역은 과잉공급으로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월세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삼성電 분기 영업익 10조원 첫 돌파 전망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58조7301억원, 영업이익은 10조 [illegible]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23.4%, 영업이익은 62.2%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14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4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갤럭시S4는 19일 한국에서도 예약 판매에 들어가며 다음달 초까지 155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전망치를 내놓은 25개 증권사 가운데 IBK투자증권(12조3480억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했고 삼성증권(9조9120억원), LIG투자증권(9조8690억원) 등 네 곳은 10조원 아래로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연금복권520 제9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2조	115306
		7조	154212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02157
4등	100만원	각조	42978
5등	2만원	각조	530
6등	2000원	각조	[illegible]
7등	1000원	각조	[illegible]

갤럭시S4 벌써 '보조금 눈치작전'

27일 90만원대 출시 앞두고 이통3사 출혈경쟁 수위조절 고민

모는 27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4'가 이동통신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실상 휴전 중인 이통 3사의 보조금 전쟁이 갤럭시S4 등장으로 한층 더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신 기능으로 무장한 현존 최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를 놓고 고민 중이다.

보조금을 줄여도 잘 팔릴 가능성이 크지만 경쟁사가 (보조금 확대) 선수를 칠 경우 고객을 잃는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늘리자니 실속을 챙길 수 없다. 이른바 갤럭시S4의 딜레마다.

1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4 출시가 이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갤럭시S4가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해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바라지만 자칫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그동안 힘들게 만들어온 질질 경쟁 풍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제품의 판매량과 번호이동자 수는 증가하지만 정작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조금을 시장에 쏟는 이통사는 수익 악화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이를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며 당시 신제품인 '갤럭시S3'가 팔리나게 팔렸지만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악화됐다.

갤럭시S4가 최고 사양의 하드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는 두 가지 무기를 함께 갖추며 소비자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90만원대로 예상되는 출고가가 부담인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미 보조금 대란 중에 '17만원 갤럭시S3'나 11만원 아이폰5'를 경험한 터라 고가의 단말기를 제값에 구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웹사이트 감염 시키는 '워터링홀' 해킹 조심

워터링홀(Watering Hole) 공격에 주의하라.

다국적 보안업체 시만텍은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지난해 세계 보안위협 동향을 분석한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 18'을 발표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기업 대상 온라인 표적 공격이 전년 대비 42%나 늘어난 가운데 표적 집단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감염시켜 방문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워터링홀' 공격이 새로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워터링홀 공격을 받은 한 인권 단체에는 24시간 동안 500개 대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시만텍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웹 기반 공격의 대부분이 워터링홀 기반이었다"며 "정상적인 사이트에 있는 것이라도 자극적인 내용에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유국왕기자 kmine@

재직기간 짧은 직장인위한 현대스위스저축 '스피드론'

신용도는 좋지만 재직 기간이 짧아 금융권 대출이 거절된 직장인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직, 신규 취업으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스피드론'(www.alpsloan.com)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스피드론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으로도 1000만원까지 즉시 송금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웹으로 조회 기록 없는 한도 조회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더 큰 한도가 필요하다면 은행 수준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직장인대출을 추천한다. 문의 1600-8853

"정말 크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삼성 214cm UHD TV 85S9를 구경하고 있다. /한웅뉴스

LTE타고… 무선인터넷 접속 2배

전년 동기대비 196%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1년 새 갑절로 늘었다.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이 급속히 보급되면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체 무선 트래픽은 2012년 1월 2만9748TB(테라바이트)에서 6월에는 4만1985TB, 9월에는 4만7581TB로 늘었고, 올해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6%인 5만8262TB에 이르렀다.

이는 2세대(2G)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3세대(3G)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4G LTE, 와이브로,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와이파이 등의 트래픽을 모두 합한 것이다.

전체 무선 트래픽 중 LTE의 비중은 지난해 1월에는 9.54%에 불과했으나 3월 16.30%, 6월 29.96%, 9월 41.05%, 12월 49.47%로 매우 빠르게 늘었고 올해 1월 52.10%로 절반을 돌파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무선 트래픽 5만6375TB 중 56.67%를 LTE가 차지했다.

이는 LTE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된 데 따른 것이다. LTE 가입자 수는 서비스 출시 1년8개월 만인 올해 4월 2000만명을 돌파했다. /박상훈기자 zen@

뉴스 & 뉴스

"피크닉 추억 응모하세요" 본도시락은 다음달 10일까지 본도시락과 함께한 피크닉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남산 N타워 다이닝 가족 패키지 등을 증정하는 '피크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직 잦으면 이직에 걸림돌

● 이직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직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 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9%에 이르는 인사담당자가 이직 횟수가 많은 구직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이미 한번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1.6%로 과반수를 넘겼다.

경력 구직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52.2%의 인사담당자가 '실무능력'을 꼽았다. 인성(23.2%), 조직적응력(20.3%) 등이 뒤를 이었다. /서국범기자

쉐보레 크루즈 신형 출시

● 한국지엠이 쉐보레의 크루즈를 업그레이드한 '2014 GM코리아 쉐보레 크루즈'를 출시해 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엔진은 1.8리터 3세대 에코텍 가솔린 엔진과 직접 연료분사 방식의 2.0리터 디젤엔진 두 종류로 나온다. 외장 색상으로는 도시적이고 시원한 느낌의 '미스 스톤 블루'와 '사파이어 블루' 등이다. 한국지엠은 "업그레이드된 자동변속기로 교체돼 한층 부드러운 변속감과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은혜기자

16일(현지시간) 보스턴의 한 교회에서 열린 추모 추도식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공포의 '압력솥'

보스턴 폭발물 정체 밝혀져… 아프간 등 테러조직도 사용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압력솥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폭탄 테러에 압력솥(Pressure cooker)이 사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복수의 소식통도 첫 번째 폭발물은 금속과 볼베어링 등이 담겨있는 6ℓ짜리 압력솥이었고, 또 다른 폭발물 역시 못이 가득 담긴 압력솥 폭탄이었다고 확인했다.

압력솥 폭탄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테러 사건에 이용됐다. FBI와 미 국토안보부가 2010년 7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압력솥 폭탄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무장세력 등 국제적인 테러 조직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압력솥 폭탄을 이용한 테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 FBI가 현장에서 수거해 공개한 압력솥 폭발물 잔해. /AFP 연합뉴스

한편 이번 폭탄 테러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남성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연관성도 일단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헌혈 그만해도 됩니다"… 대기자 명단까지 작성

끔찍한 참사의 현장에서 따뜻한 인간애가 빛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폭발사고 직후 위험한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현장으로 나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헌혈자도 쇄도했다. 상당수 마라톤 참석자들은 경승점을 통과하자마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으로 달려가 헌혈을 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병원 측은 상당수를 돌려보냈다.

헌혈자가 몰리자 적십자사는 "지금 당장은 혈액이 충분하다. 다음에 헌혈해 달라"며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기까지 했다. 사고 현장 인근 식당과 주민들은 무료 식사와 쉼터를 제공하고,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굿바이 대처" 17일(현지시각)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운구가 장례식이 열리는 런던 세인트 폴 성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장례식에 전세계 170개국의 정상과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AP 연합뉴스

쿠알라룸푸르 6만원에 간다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 부산 취항 기념 특가

말레이시아의 장거리 전문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가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 취항 기념 특가 항공권 가격을 공개했다.

16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취항 발표회에서 밝힌 프로모션 가격은 편도 6만원(유류할증료 포함)으로 해당 운임 비용은 2014년 4월 30일 출발 노선까지 적용된다. 프로모션 프리미엄석은 34만9000원에 판매된다.

이번 특가 운임을 위해 총 1만5000개의 좌석이 준비됐으며, 이달 17일 오전 1시부터 28일까지 에어아시아 홈페이지(www.airasia.com)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은 7월 15일부터 월·목·금·일요일 주 4회, 서울 노선과 같은 A330-300 기종(총 377석)으로 운항된다.

이때에 부산 갈매기 모형을 닮고 간담회에 참석한 에어아시아 엑스 아스린 오스만 라니 대표는 "여행을 즐기는 한국인들과 한류에 빠진 말레이시아인의 수요를 고려할 때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면서 "특히 부산의 해산물 음식과 쇼핑몰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에게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에어아시아 현지시의 연계를 통해 부산에서 출발하는 싱가포르·페낭·호주 푸껫 노선 증설도 계획하고 있고 제주 취항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르네상스호텔 뷔페 '5월의 행복'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다양한 할인 혜택 및 이벤트를 마련했다.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점심과 저녁에 12세 이하의 어린이 무료 혜택(성인 1인당 어린이 1인 무료)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 페인팅·사진 촬영 등 다양한 행사와 22여 가지의 사탕·젤리가 준비된 무제한 캔디 스테이션도 마련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다음달 8일 어버이날에는 부모 동반 고객에게 1인 무료 뷔페 혜택을 제공한다. 간장게장·호박죽·도가니탕·오곡밥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식 메뉴와 함께 중·일·양식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포함해 120여 가지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더불어 6월 2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즐길 수 있는 스프링 헤븐리 패키지를 이용해볼 만하다. 실내 수영장·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및 사우나 50% 할인을 비롯해 디럭스 객실 1박, 카페 엘리제에서 2인 조식 뷔페가 제공된다. 가격은 24만5000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박지원기자

익스피디아 해외호텔 특가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해외 럭셔리 호텔을 최대 70% 할인해주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태국 방콕의 '차트리움 호텔 리버사이드 방콕(4.5성급)'은 그랜드 리버뷰 룸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프로모션은 이달 30일까지 사전 예약한 다음달 31일 숙박까지 적용된다. 문의 www.expedia.co.kr /권보람기자

서울랜드는 지금 '벚꽃랜드'

17일 서울랜드의 벚꽃이 화사한 기지개를 켰다. 20일경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랜드의 벚꽃은 푸자게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한가롭게 감상하거나, 짜릿하게 허공을 가로는 놀이기구 위에서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다. /손보람기자

들어봤니? 바이크텔

관광공사 자전거 여행족 위한 숙박시설 13곳 시범 조성·운영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게쉼터와 숙박시설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여행 관광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관광공사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주변에 총 13개소의 '바이크텔'(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시범 조성해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바이크텔은 굿스테이를 비롯해 관광호텔, 유스호스텔, 민박 등 다양한 단계의 숙박시설로 만들어 장거리 자전거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20일 국수역 인근에 정식 오픈을 앞둔 '두바퀴 쉼터'의 모습

◆ **두바퀴 쉼터 드 20일 첫선**

국수역 인근 남한강 자전거길에는 '두바퀴 휴게쉼터'가 20일 첫선을 보인다.

휴게음식점과 편의점, 수리센터, 화장실, 자전거 보관 거치대 등을 설치한 이곳은 주민주도형 관광경영 공동체 조직(관광두레)에서 직접 운영하며 수익은 지역민들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관광공사 박병직 녹색관광센터장은 "추후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자전거길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마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람기자

K-푸드쇼 열린다

다음달 14~17일 킨텍스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식품대전(코리아 푸드쇼 2013)가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K-푸드,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보여준다. 주제관 1존은 각종 건강 식품과 안전 정책을 소개하는 '자연식품관'을, 2존은 '전통식품관'을 선보인다. 3존과 4존은 각각 '문화식품관'과 '비전식품관'으로 꾸며진다.

14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명품 농산물 경매 쇼'에서는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7일에는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정여사'팀이 찾는다.

'코리아 푸드쇼 2013'은 홈페이지(www.koreafoodshow.com)에서 사전 참관 등록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페라로 보는 도산 안창호 발자취

안창호 역의 테너 이동명(왼쪽)과 게이코 역의 소프라노 김지현이 연습에 한창이다

5월 10~12일 세종문화회관

창작 오페라 '선구자 도산 안창호'가 5월 10~1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도산 안창호(1878~1938)가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 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오페라로 고인이 생전에 걸어온 발자취가 그대로 무대에 구현된다.

장수동 서울 오페라앙상블 대표가 연출을 맡고 소설가 이남진이 대본을 썼다. 안창호 역에는 테너 이동명·김주완·김종혁이 나서고 소프라노 김지현·이종은이 가상의 인물 게이코를 연기한다.

글을 쓴 이남진은 "안창호 선생은 생전에 연애 한 번 안 하고 오로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며 "드라마틱한 극 전개를 위해 살짝 러브 라인을 삽입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이야기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장수동 연출은 "한국에서 창작 오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이 작품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문의: 02)747-2013

/김민준기자 mjk@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엽기·유쾌 애니캐릭터 '라바' 떴다

20개국과 방영권 계약 세계시장 돌풍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가 세계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라바'는 해외 20여 개국과 방영권 및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연말이면 수출국이 40여 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캐릭터는 대사가 없는 1분3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로 엽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며 강렬한 웃음을 선사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짧은 분량의 특징을 살려 2011년 3월 KBS1에서 처음 전파를 탄 후 지하철·버스·편의점·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방영되고 있다. 제작사는 현재 60여 개의 라이선싱 파트너사와 함께 500여 품목의 상품을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에 있으며, 올해 시장 매출 규모를 6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KBS1과 SKBTV를 통해 시즌2가 방영 중인 가운데, 내년 시즌3와 극장판도 선보일 계획이다. /박진영기자 lak4278

3D로 보는 베르디 오페라 갈라 콘서트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다음달 2~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다.

IAM(International Art Management)이 주최하고 KBS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선 소프라노 김선희·한예진과 테너 김지호가 베르디 대표작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춘희' '아이다' 등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특히 국내에선 자주 접하기 힘들었던 베르디의 '군도'의 아리아도 소개된다.

밀라노 스칼라 극장의 간판스타로 잘 알려진 테너 마리오 말리니니와 필라델피아 루치아노 파바로티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키티어 리딩이 힘을 보태고, 지휘자 클라우디오 마리아 미켈리가 이끄는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IAM은 "3D 프로젝션 맵핑 기법을 도입한 무대 설치로 관객들에게 마치 이탈리아 현지의 공연장에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살아 숨 쉬는 공연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대선주조
C1은 부산이다
부산야구가 이겼을 때 힘차게 부산갈매기를 외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에 목청껏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수놓은 화려한 불꽃의 향연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산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는 시원-
부산은 시원입니다.
시원은 부산입니다.
천연원료 토마틴으로
아침이 상쾌한 시원
C1
(시제품)

감기 달고 사는 아이… 면역력 강화가 최고 예방법

닥터 Q&A

Q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감기에 걸리더니 몇 주 간격으로 나았다 다시 걸리기를 반복합니다. 어린이집 가기 싫어 꾀병인 줄 알았는데 더욱 증상이 심해집니다.

A 네.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바이러스를 접촉하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요즘과 같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의 차고 건조한 공기는 코점막이나 호흡기 등을 자극해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잦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이의 면역력이 외부 자극 요소에 반응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해열제 등 화학약으로 증상을 잠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약물 의존은 체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므로 가급적 자제하시고 아이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수분과 영양 보충, 휴식만으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케어로 부족하다면 한의학에서는 아이의 체질과 허약한 장부에 따라 폐, 기관지 등 상초의 기체를 풀어주고 기능을 강화시키며 체내 장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열 및 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를 통해 질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우선 아이를 무조건 꾀병이라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9		2		6		7	
6	8						3	4
		5	3		4	6		
1								7
		2	5		9	8		
3	2						5	1
	4		8		3		2	
		6				3		

8		5				1		7
	7	6	2		5	3	4	
2								5
			8		7			
	5			4			9	
			5		1			
7								4
	9	2	6		4	8	3	
6		3				2		9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별이 사업찰은 부동산 보조일 막연한 기대 키우다간 실망만

피더스 72년 8월 6일 음력

Q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애독하는 독자입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변한 면에 한 번 못해보고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도 변변치 않아 어머니께 얹혀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한테 맞는지 결혼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내용을 다 적다 보면 지면이 부족하니 다음에 질문을 다시 올리십시오. 2014년에 지인의 덕으로 2015년 들은히 어엿개나마 될 수 있는데 흡족한 성취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행로를 강물의 흐름으로 비유한다면 대운은 강물이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같은 물줄기라도 흡수가 잘 나는 자에은 제방을 쌓고 이리 대비를 함으로써 일을 다스리는 지수를 하기 위해 사주를 봅니다. 그러나 한강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물줄기를 돌려서 흐르게 할 수는 없듯이 사주에 큰 일은 사람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기도 불편합니다. 2013년도는 저앙살(災殃殺)로 남과의 시비에 끼어들지 말도록 매사 조심하십시오.

중소기업서 쥐꼬리 월급 힘겨워 내년 지나면 능력 인정받아 활짝

윤도우/ 남자 75년 7월 12일 양력

Q 서울에서 명대를 나와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놓은 돈은 없고 변변한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인생이 답답하기만 하고 한편으로는 공부를 많이 한 것이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저기 남들처럼 안연히 살아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을까요.

A 성격이 침착하고 합리적인 것이 장점으로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완벽함을 추구하기에 절대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현재 '물 위를 떠다니는 나무'와 같아 자기 집이 없어 주거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남자에게 재물과 아내를 나타내는 재성(財星)이 사주에서 사묘(死墓)즉 고 묘에 들어감으로 가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나 대신 천문(天門)으로 빛내이는 신묘한 생각이 있으니 자연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극복하도록 다시 기획을 합니다. 2014년 지나면서 교육 계통, 외국어와 연관되어 직장에서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 회계와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면제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4월 18일 (음 3월 9일) 박청화 철학원 031)863-8305

쥐: 84년생 매사에 조심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운세. 72년생 오래된 미수금을 독촉하면 회수될 수 있는 운. 60년생 투가상이 강한 일에 손을 대면 손해를 본다. 48년생 책임져야 할 일이 겨을이 터질 듯.

소: 85년생 금전 손실없게 관리를 잘해야. 73년생 눈 뜨고 코 베이듯 내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를. 61년생 친구와의 다툼이 있을 수도. 49년생 열심히 계획한 일이 오히려 무리수가 될 듯.

호랑이: 86년생 분주, 주도하여 일이 진행될 듯. 74년생 피로하여 건강에 적신호가. 62년생 기대치가 높아지고 활동력도 왕성해지나. 50년생 불안한 일들로 인하여 금전의 대가의 손상이 있을 듯.

토끼: 87년생 금전적인 면에서 노력한 대가가. 75년생 경쟁적으로 과감히 추진하라. 63년생 정신적인 성숙으로 인하여 한시기 편을 라. 51년생 매사에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듯.

용: 88년생 동분서주 하지만 이룬은 적을 듯. 76년생 원활해서 글을 도모할 일이. 64년생 먼 곳에서 일을 들고 오지만 실익은 약할 듯. 52년생 친구와의 동업이 수포로 돌아갈 듯.

뱀: 89년생 너무 욕심이 많으면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77년생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65년생 경쟁자에 의존해서 실리적인 면을 노려야. 53년생 일쉬기 피하서 돌아야 하는 상태.

말: 78년생 활동적인 움직임이 오는 운세. 90년생 많은 노고와 좌우가 일어지는 하루. 54년생 만나를 통하여 진력을 다하는 일상. 42년생 부자한 것을 채울기하고 다시 보신 후자하는 것이.

양: 79년생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날이니 새로운 기회가. 67년생 지은이 불리한 상황이니 자곤한 도량. 55년생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달랑은 아니라도 부담이. 43년생 한가롭지 못한 하루가 될 듯.

원숭이: 80년생 몸과 마음이 들뜨는 하루. 68년생 좋아 움직 방심하는 일은 일단 하고 보는 것이. 56년생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이 좋을 듯. 44년생 좋은 기운의 새를 기다려야.

닭: 81년생 마음 한쪽 섭섭해지고. 69년생 적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고단한 하루가. 57년생 부인을 존중하여 공경하여야. 45년생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소념을 버리지 마라.

개: 82년생 거울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70년생 급히 결단 할 때 제비구와 손잡이 필요. 58년생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나가야 할 일이. 46년생 원활하던 원했던 금전 문제가 해결될 듯.

돼지: 83년생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모임. 71년생 부도덕한 행동으로 다툼이 발생할 듯. 59년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도모한 대한 결과는 부실. 47년생 변하지 않음이 오히려 약요과를 줄 수 있는.

"알몸연기… 또다른 나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영화 '박치기!'의 재일동포 여고생 역으로 낯익은 일본 미녀스타 사와지리 에리카(27)가 5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헬터 스켈터'(다음달 2일 개봉)의 홍보를 위해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입국 당일인 16일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만난 그는 "이번 작품으로 어떻게 살아야 옳지 깨달았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영화 '헬터 스켈터' 들고 한국 온 일본 미녀스타 사와지리 에리카

▶ **두 번째 한국 나들이** – 7년 전 '박치기!' 개봉 당시 내한한 적이 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간 다면 성형수술도 받아야지 (웃음) 하하 (농담이다)

▶ **헬터 스켈터** – 일본의 인기 만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전신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허물어져 가는 톱스타 리리코를 연기했다. 원작을 읽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 **전라 노출** – 이전 작품에서의 청순가련했던 이미지와 정반대인 캐릭터이므로 기존의 팬들은 아마 놀랐을 것이다. 솔직히 내겐 엄청난 도전이고 두려움이 있었다. 옷 벗는 연기가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격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연기를 해 본 적이 없어서였다. 그러나 내 안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컸다.

▶ **리리코는 또 다른 나** – 옥상에서 리리코가 "연예활동을 그만두고 싶다"며 우는 장면이 있다. 나도 그랬었다.

▶ **가장 어려웠던 장면** – 극중 여자 매니저(테라지마 시노부)와 방 안에서 동성 러브신을 촬영할 때였다. 크랭크인한 지 얼마 안 돼 다소 서먹서먹한 사이였다. 둘 다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고된 장면이었다.

▶ **연예 저널리즘을 향한 경고** – 결말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리리코가 자신의 눈을 송곳으로 찌르지만, 사진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 셔터만 눌러대는 장면이 나온다. 남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매스컴의 심리인 것 같다.

▶ **성형수술에 대한 시선** – (한국에선 종종 여자 연예인들의 성형 전 모습이 공개되곤 한다는 말에) 정말? 일본에선 보기 힘들다.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것 같다. 이 참에 일반인들의 성형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은 간혹 있다.

▶ **예뻐우는 상품?** – 나를 비롯한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어떤 이를 보면 '이제 소비될 만큼 소비됐구나. 사람들에 질려 하겠는걸' 이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숙명이다.

▶ **미모관?** – 요즘 들어선 미모가 망가지고 난 뒤의 모습이 가끔 궁금해지고 걱정된다. 솔직히 성형수술에 대한 유혹도 느낀다. 성형수술을 받는다면 이후의 외모가 어떻게 비칠지 흥미로우면서도 불안하다.

▶ **하정우** – 하드보일드하면서도 액션 연기를 잘하는 한국 남자배우와 공연하고 싶다. (하정우를 추천하자) 그분의 작품을 본 적이 없어서 (관계자가 스마트폰으로 찾아 보여준 하정우의 사진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챙겨 보겠다.

▶ **우린 아시아인** – '박치기!'에서 자이니치(재일동포를 일컫는 현지어)를 연기했지만 솔직히 한국을 잘 모른다. 국적을 떠나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아시아인 아닌가. 아시아인으로 합심하면 할리우드를 능가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한지혜

원작 읽고 충격 – 성형유혹 느껴
동성 러브신 촬영 가장 어려웠다
예뻐우는 상품 – 그게 숙명이죠

■ 사와지리 연예계 데뷔부터 현재까지

1986년 일본인 아버지와 알제리계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와지리 에리카는 인형처럼 깜찍한 외모를 앞세워 초등학교 6학년 때 CF 모델로 데뷔했다. '박치기!'로 스타덤에 올라 드라마 '1리터의 눈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2007년 영화 '클로즈드 노트' 무대인사에서의 무성의한 태도로 선배 연기자들과 언론의 비난을 사고, 스물두 살 연상의 비디오 아티스트 다카시로 쓰요시와의 결혼과 이혼, 마이초 흡입 의혹이 겹치면서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간의 은둔을 마치고 돌아온 사와지리는 이 같은 과거를 의식했는지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 예의 바른 자세로 성실히 답하는 등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깨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star bag

피처링 참여 윌아이엠 '거링덤' 공개

2NE1과 세계적인 프로듀서 겸 가수 윌아이엠이 손잡은 새 노래가 베일을 벗었다.

16일 윌아이엠의 SNS 계정을 통해 2NE1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신곡 '거링덤'의 음원이 공개됐다. 윌아이엠 특유의 비트에 2NE1의 개성 강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이들의 기존 음악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다.

댄스곡 '인터뷰'로 가요계 컴백

아이비가 1년여 만에 가요계로 돌아온다. 아이비는 올 상반기 4~5곡의 신곡을 수록한 앨범 '인터뷰 파트2'를 발표한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인터뷰 파트1'의 후속 앨범으로 60% 이상 작업이 진행됐다. 소속사는 "타이틀곡은 댄스 장르이며 아이비표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던 팬들에게 선물 같은 음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아·류수영과 한솥밥 먹는다

연기자 이보영이 새 둥지를 찾고 이지아·류수영과 한솥밥을 먹는다.

팔엔터테인먼트는 17일 "이보영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여러 매니지먼트사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배우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해외 활동도 돕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드라마 '내 딸 서영이'를 끝낸 이보영은 현재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황금의 제국' 주인공 여동생 역

탤런트 윤승아가 SBS 새 월화극 '황금의 제국'에 출연한다. 소속사는 17일 "'추적자'의 박경수 작가와 조남국 PD가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주인공의 여동생 최주를 연기한다"고 전했다. 이 드라마는 1990년 초부터 20여 년 동안 한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그린다. 손현주·박근형·류승수 등 '추적자'의 주요 출연진이 합류한다. 7월 첫 방송.

"기획사 가도 안 변해요"

악동뮤지션 "소속사 아직 못 정해 · 작곡하는데 짧게는 5분 걸려"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2'의 우승자인 10대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이찬혁·이수현)이 소속사 결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밝혔다.

팀 내에서 작사·작곡을 도맡았던 오빠 이찬혁(오른쪽)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M·YG·JYP 등 세 기획사가 다 좋아서 앞길을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부모님과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 음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소속사와 함께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안정적인 가창력을 뽐냈던 이수현은 오빠의 설명에 덧붙여 "SM은 세련되고 YG는 멋있고 JYP는 가족적"이라고 세 회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면 악동뮤지션의 독특한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팬들의 우려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악동뮤지션은 '다리꼬지마' '매력있어' '크레센도' 등 발표하는 자작곡마다 재치 있는 가사와 신선한 곡 전개로 심사위원들과 대중을 사로잡으며 우승했다. 특히 오디션 참가자로는 이례적으로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그 비결에 대해 남매는 '꾸미지 않은 음악'을 꼽았다.

이찬혁은 자작곡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작곡을 시작했다는 그는 "짧게는 5분, 길게는 40분이면 곡을 만든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빨리 끝내야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10대 남매답게 귀여운 모습도 보였다. 이수현은 "남매라 좋은 점도 많지만 톱 3 결정 전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아 라면 먹거나 TV 보는 것 등 자잘한 이유로 많이 싸웠다"면서 웃었다.

이들은 당분간 부모님이 있는 몽골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찬혁은 "감격스럽고 얼떨떨한데, 사랑으로 지켜봐주면 더 좋은 자작곡으로 보답하겠다.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수현은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2'의 우승자 악동뮤지션이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싸이 '젠틀맨' 공개 5일만에 42개국 아이튠즈 1위 등 자신의 기록 모두 경신

빌보드 정상만 남았단 말이야~

이르면 다음주 달성

이제 빌보드 정상만 남았다!

싸이가 '젠틀맨'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자신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워 마지막 남은 기록인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빌보드 순위 동향과 비교할 때 이르면 다음주 정상 등극의 대기록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빌보드는 3월 2일자부터 '핫 100(싱글차트)' 순위 집계에 영상사이트 유튜브 점수를 포함시켜 싸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미국 음반판매량 조사회사 닐슨이 집계한 방송 횟수와 스트리밍, 음원 다운로드만을 합산해 순위를 매겨왔다.

싸이보다 먼저 집계 방식 변경의 수혜를 본 가수는 미국의 무명 DJ 바우어다. 바우어는 '할렘 셰이크'로 집계 방식 변경 직후인 3월 2일자부터 5주 연속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최초 1위 등극 당시 성적만 비교하면 싸이는 이를 능가한다. 바우어는 3월 2일자 차트가 공개된 2월 21일을 기준으로 라디오 방송 횟수는 0점이었다. 스트리밍과 음원 다운로드의 기준이 되는 아이튠즈 성적은 4위였다. 결국 유튜브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어 다른 가수들을 제칠 수 있었다.

이후 라디오 방송 횟수 점수는 줄곧 40위권에 머물렀고, 아이튠즈 성적은 2월 28일부터 17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싸이는 17일까지 라디오 방송 점수는 0점이고 아이튠즈 성적은 이틀 연속 1위다. 유튜브에서는 뮤직비디오 공개 나흘 만에 1억 건을 돌파했다. '할렘 셰이크'는 관련 패러디 영상 수가 많았고, '젠틀맨'은 단일 영상 조회 수에서 단연 앞선다.

싸이가 당분간 지금 같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강남스타일' 때와 달리 방송 점수가 없어도 빌보드 1위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싸이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공개 80시간 만인 17일 오전 5시 유튜브 조회 1억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단기간 1억 뷰 돌파 신기록을 세웠다.

또 이날 전 세계 아이튠즈 차트 중 42개국에서 1위를 기록해 '강남스타일' 당시 기록(41개국 1위)을 경신했다.

/유순호기자 suno@

HOT PHOTO

"우리결혼해요" 영화같은 웨딩화보 배우 박솔미(오른쪽)와 한재석이 결혼식을 앞두고 영화 같은 분위기의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특히 박솔미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품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미모를 뽐냈다. 2007년 KBS2 사극 '거상 김만덕'에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21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탁진현기자 사진=스타공소엔터테인먼트 제공

▶ '역시 선남선녀 커플'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운 건 어쩔 수 없군요.

사극 '장옥정' 김태희 하이힐이 웬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SBS 월화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 김태희가 굽 높은 신발(꽃신)을 신고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방영된 3회에서는 장옥정(김태희)이 인경(김하은)을 위해 다홍치마를 구하러 급하게 뛰어가는 장면이 방영됐다.

이 장면에서 김태희가 하이힐만큼 굽이 높은 꽃신을 신은 모습이 포착됐다.

방영 후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대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옥에 티"라는 지적과 "퓨전 사극이니 이해할 수 있다"고 옹호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 같은 논란에 제작진은 "장옥정을 패션 디자이너로 설정한 퓨전 사극이라 신발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탁진현기자

문병곤 감독 '세이프' 칸 단편경쟁 진출

문병곤 감독의 '세이프'가 다음 달 개막될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고 영화제 측이 17일 밝혔다.

중앙대 영화학과를 졸업한 문 감독은 '불멸의 시나이'로 2011년 비평가 주간에 진출했었다. 132개국 3500여 작품이 출품된 올해 단편 경쟁 부문에선 '콘돔 리드' '모어 댄 투 이워스' 등 9편과 상을 다툰다.

한편 재능 있는 영화학도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는 김수진 감독의 '더 라인'이 초청됐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위대한 개츠비'와 올랜도 블룸 주연의 '블루 기'가 각각 개·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유선준기자

올해 칸 영화제 포스터.

"CH view가
당신의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추적르포
사라진 가족 4
CH view 매주 목요일밤 11시
tcast
제보/문의 02-591-4527

맨발의 상춘객, 백범길로!

지난해 열린 마곡사 신록축제에서 참가자들이 1000인분 비빔밥을 함께 만들고 있다 /공주시청 제공

27~28일 마곡사 신록축제 여는 충남 공주 이준원 시장 인터뷰

화사한 봄꽃과 녹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천년 고찰 마곡사 일원에서 맨발로 걷는 '제10회 마곡사 신록축제'(4월 27~28일)가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마곡사는 '춘마곡(春麻谷)'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봄철 경치가 빼어나다.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됐으며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이 은거했던 곳이기도 하다. 태화산의 자락이 사방으로 전개되는 심산유곡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축제에서는 충남교향악단을 비롯해 연정국악원의 국악한마당 등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준원(49·사진) 공주시장은 "신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천년 고찰에서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문화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며 "공주산성과 무령왕릉 등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재도 감상하고 먹을거리도 풍부한 공주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공주=손옥준기자 son5841@metroseoul.co.kr

공주는
구석기·백제·근대 숨결 가득
칼국수·동해관 짬뽕 등 별미

축제프로그램은
태화산 맨발걷기 메인행사
1000인분 화합 비빔밥 먹고
합장주·심주·연꽃 만들기도

- 마곡사 신록축제만의 매력은

▶ 마곡사 신록축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자연이 만든 것이다. 따스한 봄볕이 만들어 놓은 연초록의 신록과 싱그러운 봄바람에 귀를 놓은 꽃잎이 떠다니는 마곡천의 물소리를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야 마곡사신록축제를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이 사색하며 걸던 '백범 명상길'에서 열리는 태화산 등반대회는 자연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맨발로 흙길을 걸어본 후 느낌을 쓰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눔의 소감 나누기 등 불교문화 특유의 수행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미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상춘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참여 행사는.

▶ 마곡사 신록을 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태화산 권역로 걷기 행사를 부처님오신날(5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나눔 프로그램으로는 사찰에서 주로 이용하는 식재료로 1000인분의 비빔밥을 만들어 다 함께 먹는 '화합의 비빔밥' 나누기가 있다. 또 태화산 생태체험, 염주를 한 알씩 꿰어 만드는 합장주 및 심주 만들기, 종이로 연꽃 만들기, 탁본과 인경을 체험하는 사각체도 진행된다.

신록축제에 앞서 우리 민족의 전통 제의인 굿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계룡산 산왕사 산신제(4월 25~28일)'가 열려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드릴 것이다.

- 공주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 공주 하면 백제 유적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구석기 유적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구 공주읍사무소, 금강철교, 공주제일교회, 중동성당, 충남역사박물관 등 의미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풍성하다.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농촌에서)' 시책에 따라 조성된 50여 개 농촌체험마을에서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다. 공주칼국수, 공주국밥, 사찰 주변의 산채비빔밥, 전국 5대 짬뽕으로 불리는 동해관 짬뽕까지 여행에 필수인 먹거리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 날짜: 4월 27~28일
- 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일원
- 문의: 041)840-2864~5(공주시청 관광과)

대형마트 없는 공주 '조선시대 쇼핑 명소' 산성시장 아성 여전

공주시는 인구 12만 명의 자치단체지만, 그 흔한 대형마트가 없다.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모르는 것은 충남도 내 재래시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주산성시장(사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찾아간 산성시장은 마침 장날이어서 더욱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은 미나리, 냉이·쑥 등 갖가지 봄나물 손질로 분주했고,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는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늦은 식사를 하는 상인들이 선택한 메뉴가 칼국수여서 과연 '공주칼국수'라는 명성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했다.

현재 600여 개 점포가 성업 중인 산성시장은 구도심 지역임에도 불구 지난 2011년 이후 2년 연속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곳'에 선정될 정도로 활성화됐다.

조선 후기에는 매년 봄·가을로 두 번씩 40여 일 동안 공주약령시가 열려 전성기 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약재상 때문에 숙소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거의 폐장 상태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현대화된 모습을 갖췄다.

공주시청 관광축제팀 이혜영 문화관광해설사는 "산성시장은 공주 시민들과 세종시 첫마을 주민들도 자주 찾는 명소"라고 설명했다.

글 사진/손옥준기자

일제가 겁낸 '각본 없는 전통놀이'

이야기가 있는 축제

청도소싸움 축제(17~21일)

17일부터 21일까지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는 각본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싸움소들의 현란한 기술 위에 펼쳐지는 '2013 청도소싸움축제'가 그 현장이다.

1990년 '영남민속투우대회'로 시작해 1999년 축제 이름을 지금의 청도소싸움축제로 개명하고 본격적인 전국 규모 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힘찬 도전! 정직한 승부!'라는 슬로건 아래 예선을 거친 싸움소 90여 두가 체급별로 나뉘어 토너먼트 빅매치를 전개한다.

소싸움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농경문화가 정착된 이후 목동들의 즉흥 놀이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풀을 뜯던 소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모습을 응원하던 것에서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한 소싸움은 부락과 씨족의 명예를 건 과시의 장으로 변했다.

추석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마을의 축제처럼 열리던 소싸움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단합을 두려워 한 일본에 의해 폐지 당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부활돼 70년대 중반 민속놀이로 자리 잡았다. /김성환기자

온라인몰 옥션 '4월엔 40% 할인' 이벤트

온라인 쇼핑몰 옥션이 최대 4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이벤트 '4월엔 40%'를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신규 CF를 선보였다.

옥션은 이달 말까지 '4월엔 40%' 행사를 통해 최대 40% 할인쿠폰, 아시아나 제주도 왕복 항공권(400명), 4대 생활을 책가전 등 지난해에 이어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인 광고에서는 전편에 이어 옥션걸 이세영이 출연해 깜찍하고 발랄한 모습을 선보였다.

옥션 관계자는 "보통 4월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특별한 이벤트를 열지 않는 게 업계 관행이지만 옥션은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파격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이번 광고에서 옥션걸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세영이 굳은 결심에 찬 큰 붓을 휘두르는 앙증맞은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이승엽 '쐐기 3점포' 날았다

SK 김광현 복귀전 6이닝 6K '합격점' 한화, NC에 2연승

17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 전에서 삼성 이승엽이 8회말 2사 1, 2루의 상황에서 우월 3점 홈런을 터뜨리고 선행주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이 이승엽의 쐐기 3점포를 앞세워 SK를 제압했다.

삼성은 17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홈 경기에서 SK에 11-5로 재역전승을 거뒀다.

라이언 킹 이승엽은 8-5로 전세를 뒤집은 8회 말 2사 1, 2루에서 SK투수 전유수로부터 우월 3점짜리 홈런을 터뜨려 승부를 굳혔다.

이승엽은 5구째 시속 145㎞짜리 직구가 몸쪽 높은 곳으로 오자 그대로 잡아당겨 펜스를 넘겼다.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린 이승엽은 통산 347번째 홈런으로 은퇴한 뒤 선배 양준혁이 보유 중인 한국프로야구 개인통산 최다홈런 기록(351개)에 4개 차로 바짝 다가섰다.

6개월 만에 선발 등판한 SK 김광현은 6이닝 동안 4안타와 볼넷 하나를 내주어 3실점(비자책)했으나 6개의 삼진을 뽑아내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

김광현은 2회 3점을 내줬지만 수비 실책에서 비롯된 실점이라 자책점은 하나도 없었다. 왼쪽 어깨 근육을 다쳐 지난 시즌 이후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김광현은 이날 85개의 공을 던졌다.

대전에서는 한화가 NC를 4-3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광주에서는 홈팀 KIA가 LG에 9-4로 완승을 거두며 9승3패를 기록,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정용환기자 unique@metroseoul.co.kr

스포츠브리핑

■ 류현진 21일 천웨인과 맞대결

류현진이 21일 천웨인과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17일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21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 선발투수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류현진과 맞붙는 볼티모어의 투수는 대만 출신의 좌완 에이스 천웨인이다. 두 선수는 한국과 대만 야구의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야구 전적 (17일)

■ 포항

팀	1-3	4-6	7-9	R
SK	002	100	110	5
삼성	030	000	26X	11

[illegible]

■ 대전

팀	1-3	4-6	7-9	R
NC	120	000	000	3
한화	110	011	00X	4

[illegible]

■ 광주

팀	1-3	4-6	7-9	R
LG	200	020	000	4
KIA	014	010	03X	9

[illegible]

■ 사직

팀	1-3	4-6	7-9	10	R
넥센	000	000	002	2	4
롯데	020	000	000	0	2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17일)

홈			원정
전북	2	0	대구
성남	2	1	서울
울산	3	0	대전
부산	2	1	수원

[illegible]

프로농구 챔피언결정 4차전 (17일)

모비스	77-55	SK

"손흥민 몸값 170억 줄게"

토트넘, 함부르크에 제의 이적료 인상 가능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 손흥민(21 함부르크 사진) 영입을 위해 1000만 파운드(약 170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미러와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신문은 17일 "토트넘이 함부르크와 협상을 시작했다"며 "손흥민은 클럽에서 10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는 공격 라인 어디서나 뛸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라고 설명했다.

미러는 "토트넘은 공격수 가레스 베일을 대체할 자원이 필요하다"며 "손흥민은 앞으로 가치가 치솟을 가능성이 커 제시액을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들은 손흥민이 2014년 여름까지 함부르크와 계약돼 있지만 새 선수 영입에 쓸 자금이 필요한 함부르크가 손흥민을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준기자 mjkim@

신지애 롯데챔피언십 불참

신지애(25 사진)가 허리 통증으로 18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는다.

신지애는 지난주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스튜디오 앨리스 여자오픈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신지애의 소속사인 세마스포츠 관계자는 "신지애의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병원에서 장시간 비행기 탑승 등 장시간 앉아있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12번째 프리미어리거 김보경 "새로운 도전 행복… 더 열심히 뛸 것"

12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 탄생한 김보경(24 카디프시티 사진)이 "목표로 삼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뤘다는 게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보경은 17일 "팀이 창단한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서 기쁘다"며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하며 목표로 삼은 1부리그 승격을 이뤄 기쁘고 행복하다"고 밝혔다.

카디프시티는 이날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찰턴 애슬레틱과의 2012~2013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43라운드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25승9무9패(승점 84)를 기록한 카디프시티는 3위 왓퍼드(승점 71)와의 승점 차를 13점으로 벌리면서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2위를 확정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권을 확보했다.

김보경은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프리미어리그는 승격도 어렵지만 잔류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렵다. 팀이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중상위권에 잔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 Hello 인사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Good evening.
B Good evening. 저는 잭 스미스라고 합니다.
A 저는 해리 존스예요. How are you?
B Very well, thanks. And you?
A 덕분에 잘 지냅니다.

정답 I'm Jack Smith. / I'm Harry Jones. / Fine, thank you.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평으로합니다.

생생영어팁

▶ 참~ 좋은 인사

사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찌감치 배워온 다음 문장들은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인사표현입니다.

A How are you?
B I'm fine, thanks. And you?
A I'm fine, too.

그런데 I'm fine, thanks. And you?를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이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fine과 thanks 사이에서는 약간의 숨을 쉬세요. thanks는 우리말로 '덕분에요'와 같은 의미니까요. 또 약간 쉰 다음에는 And you? 또는 How about yourself? 또는 And how are you?라고 상대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Please note that any changes to your reservation should be made at least three days prior to your ______ at the hotel.
(A) arrive (B) arrival
(C) arrives (D) arrived

02 ______ offering lightweight clothing, Hurwitz Travel Wear also sells stylish luggage and accessories.
(A) Except (B) Besides
(C) However (D) Unless

01. 예약 사항을 변경하시려면 적어도 호텔 도착 3일 전에 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이며, 대명사 소유격(your)이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명사인 arrival(도착)을 쓴다.
어휘 prior to 및 ~전에
정답 (B) arrival

02. 후르비츠 여행복은 가벼운 의류를 제공하는 것 외에 멋진 집가방과 부속물도 판매한다.
해설 빈칸 뒤에 진행형 동명사가 오므로, 빈칸에 전치사가 와서 뒤의 절이 부사구가 되거나 접속 접속사가 와서 부사구절이 되어야 한다. 문맥상 첨가(~외에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B) Besides를 써야 한다.
어휘 lightweight 및 가벼운 stylish 및 유행을 따르는, 멋진 luggage 및 여행 가방 accessory 및 액세서리, 부속물
정답 (B) Besides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시간 정보 말하기

Q How long is the workshop? 워크숍은 얼마 동안 계속되나요?
A It will be held from 9 a.m. to 5:30 p.m. 그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릴 것입니다.

■ from ~ to | ~부터 ~까지
장소를 말할 때는 작은 장소에서 큰 장소 순서로 말한다.
It will be held from 9 a.m. to 10 a.m. 그것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열릴 것입니다.
You will have lunch from noon to 1 p.m. 당신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We are open from 10 a.m. to 8 p.m. 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엽니다.

■ for | ~동안
장소를 말할 때는 작은 장소에서 큰 장소 순서로 말한다.
It will last for nine hours. 그것은 9시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It will last for three weeks. 그것은 3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